

'대한민국' 한눈에 볼 수 있는 정보창고

조 선일보 데이터뱅크는 인물DB, 기사DB, 잡지DB, 사진DB, 도서DB, 사건DB, 언론연보DB 등 7개 데이터베이스로 구성돼 있다. 7개 DB의 원천은 지난 20년에 창간한 조선일보라 할 수 있다. 정치, 사회, 문화 등 우리의 실생활과 관련된 분야를 다루고 있는 조선일보 제작을 통해 축적된 각종 자료들을 근간으로 지난 80년대 후반부터 제작에 착수해 완성을 보았다.

“사회적 공익기관으로서의 언론의 역할이 디지털 시대에서는 전자매체로서 더욱 중요해 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정보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는 뉴미디어의 하나로 독자들에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연적이라 보았습니다.” 라고 원영희 부국장(정보자료부)은 구축 배경을 밝혔다.

자사에서 발행하는 신문, 잡지, 인물, 사진 등을 창간부터 현재까지 DB로 구축한 것은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유일하다. 이는 창간부터 축적된 데이터를 모두 구축하는 것이 방대한 작업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용효율적 측면에서 볼 때 결코 높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선일보 데이터뱅크는 창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 자료를 색인이나 전문으로 축적해 놓았기 때문에 이용 가치 측면에서 매우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이용빈도가 높은 최근 자료는 전문으로 수록하고 수십년전 자료는 색인으로 작성해 이용자가 색인에서 찾은 필요한 정보는 정보센터에 소장하고 있는 해당 신문이나 잡지를 통해 전문을 살펴볼 수 있게 구축했다.

한편 데이터뱅크는 별도의 도메인명을 정하기 위해 이름을 공모중에 있으며, 2-3개월간의 시범 서비스를 통해 이용 활성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기사DB

기사DB는 1920년 창간 때부터 80년간의 기사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서비스하고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 스포츠 등 모든 분야의 뉴

스와 정보를 수록하고 있는 기사DB는 창간호부터 89년까지는 기사의 제목, 게재연월일, 기고자 등을 수록한 색인으로, 90년부터는 기사의 전문형식(Full-Text)으로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신문형태와 동일한 이미지로도 검색이 가능해 독자가 과거의 신문을 받아보는 현실감을 느낄 수 있다. 색인에서 찾은 기사의 원문은 팩스나 우편으로 받아 볼 수 있으며 기사의 검색은 칼럼, 시리즈, 사설 등 유형별 검색이나 게재일, 기고자 검색 또는 시소러스를 이용한 키워드 검색 등을 활용해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다.



인물DB

인물DB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견 인사 13만여명의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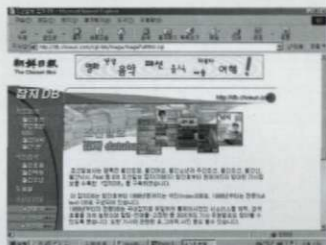
구성은 인물사진을 비롯해 성명, 현직, 학력, 경력, 가족관계, 상훈, 저서/논문, 작품/기록 등의 프로필로 꾸며져 있다. 특히 97년부터

조선일보와 주간조선, 월간조선 등에 게재된 인물 관련 기사가 수록되어 있어 해당 인물에 대한 보다 실증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특히 역대 3부 요인과 장관관 및 주요 기관장의 재직기간이 포함된 프로필과 노벨상을 비롯한 국내외 주요상 수상자에 대한 정보가 상세히 수록되어 있다. 검색은 성명, 현직, 직위, 직업, 출생지, 출생연도, 학력(출신학교), 경력 등으로 쉽게 살필 수 있다.

잡지D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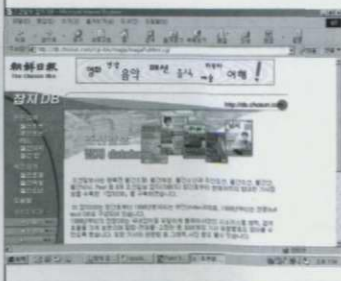
잡지DB는 자사에서 발행하고 있는 8개 잡지의 모든 기사를 구축한 데이터베이스이다. 광복전에 발행한 월간지 조광(1935-1944), 여성(1936-1940), 소년(1937-1940)과 현재 발행중인 주간조선(1968-), 월간조선(1980-), 월간산(1969-), 월간뉴스(1983-), FEEL(1985-) 등을 수록하고 있으며 98년까지는 기사의 제목, 게재연월일, 기고자 등을 수록한 색인으로, 99년부터는 전문으로 제작돼 있다.



사진DB

사진DB는 60년부터 조선일보 기자들이 뉴스현장에서 취재한 사건, 인물, 정치, 경제, 산업, 자연, 과학, 스포츠 등의 뉴스 사진과 항공촬영사진, 문화재, 사찰, 산, 강, 전국의 주요 시설물 사진 등 모두 29만 6천여장을 수록하고 있다. 또한 주간조선이나 월간조선, 월간산, 월간뉴스, FEEL 등 자매지 제작을 위해 취재한 사진도 포함하고 있다.

사진DB는 공공기관이나 단체, 기업, 광고 홍보회사, 출판사 등의 간행물이나 사보, 캘린더, 포스터, 백과사전, 연감, 단행본, 잡지 등 각종 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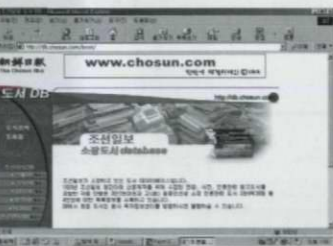
판물과 전시회,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시 필요한 사진을 PC에서 간편하게 찾아 이용할 수 있다.

도서DB

도서DB는 조선일보가 소장하고 있는 3만 7천여권의 도서를 수록하고 있는데 정치, 경제, 사회, 역사, 문화, 통계 관련도서 등 신문 제작에 사용되는 각종 참고도서와故 홍종인 선생이 기증한 홍종인 소장 도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사건DB



사건DB는 역사적인 사건이나 사고를 알고 싶을 때 매우 유용하게 살펴 볼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로서 역사상 기록에 나와 있는 주요사건과 사고를 사건별, 일자별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특히 78년부터 조선일보가 선정한 국내외 10대뉴스가 사진과 함께 수록돼 있으며, 자신의 음력 생일과 양력일자를 찾아 볼 수 있는 달력을 제공함으로써 유용성을 더하고 있다.

언론연보DB

언론연보DB는 우리나라 언론연보와 조선일보의 상세한 연보를 수록하고 있다. 이 DB는 1900년부터 신문, 방송, 통신 등 국내 언론연보와 조선일보 80년 연보를 구축한 것으로 한국의국어대학교 정진석 교수가 작성했다.

